

사회

“손님 쫓는 CCTV 옮겨줘”

“설 대목 재래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눈감아 줍니다”

일곡지구 상인들 ‘주정차 단속 불만’ 인권위에 민원

광주 2·전남 12곳 8~13일 까지

북구청 “원활한 교통 흐름 위해 꼭 필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광주 도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된 무인카메라 주변 가게 상인들은 카메라의 ‘감시’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광주은행 인근 상인 50명은 최근 일곡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 카메라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북구청에 제기했다.

상인들은 “광주은행 주변에 대형

유희인대장을 포함해 금은방·옷가게 등 20여 개의 상가가 있는데, 매일 단속에 적발된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가뜰이나 어려운데 CCTV 설치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정이다.

북구 문흥동 S마트 인근 상인 주민 30명도 지난 2008년 8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CCTV와 교통표지판, 신호등이 한데 섞여 손님이 간판을 쉽게 보기 어렵다며 상인들의 손을 들

어졌다. 결국 S마트 앞 도로에 설치된 CCTV는 기존 위치에서 50m 가량이 동됐다.

하지만, 북구청 측은 교통 흐름과 불법 주정차 현황 등을 검토해 CCTV를 설치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가로막는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청은 4일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 등 전국 재래시장 주변 도로 115곳을 대상으로 낮에도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오는 8~13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광주는 광산구 송정시장과 서구 치평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전남은 목포 동부시장, 여수 서시장, 보성시장, 벌교시장, 영광 매일시장, 함평 월야5일장, 함평 해보5일장, 담양5일장, 장평시장, 완도시장과 완도 중앙시장, 구례시장 등 12곳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양동시장 등 대형시장 주변 도로에서 심야(새벽 1~6시)에 주차를 허용해왔지만, 낮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안내 플래카드로 주차 허용 구간을 알리는 한편, 교통경찰관과

■설연휴 직전(8~13일) 주간 주차허용 재래시장

광주	송정시장, 치평시장
전남	목포 동부시장, 여수 서시장, 보성시장, 벌교시장, 영광 매일시장, 함평 월야5일장, 함평 해보5일장, 담양5일장, 장평시장, 완도시장, 완도 중앙시장, 구례시장

상인회 자체 질서유지 요원 등을 동원해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9분 해질 18시 04분 달돋이 00시 01분 달질 10시 42분

남해안 건조주의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여수 등 남해안은 건조하겠다.

광주	구름 조금	-5/4℃
목포	구름 조금	-3/5℃
여수	구름 조금	-3/5℃
완도	구름 조금	-3/5℃
구례	구름 조금	-6/4℃
해남	구름 조금	-6/5℃
장흥	구름 조금	-6/5℃
고흥	구름 조금	-5/6℃
순천	구름 조금	-3/5℃
영광	구름 조금	-6/4℃
진도	구름 조금	-3/5℃
전주	구름 조금	-8/3℃
남원	구름 조금	-10/2℃
목산도	구름 조금	0/4℃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관심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목포	06:32	11:3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여수	01:04	07:00

◇주간날씨

날짜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5/6	-2/8	4/10	5/13	6/12	6/9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건강천사단 이주여성 의료봉사

가정과 저소득층 이주여성·자녀 등에게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전남대병원 소속 의사 등으로 구성된 ‘사랑 실천 건강천사단’이 4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혼잡

이동 인원 2,546만명

올해 설 연휴는 짧은 연휴기간(13~15일)과 이동인원의 증가로 귀성길과 귀경길이 예년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성길은 설 전날인 13일 오전이 가장 막히고,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5~2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6천800세대를 대상으로 설연

휴 교통수요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오는 12~16일까지 5일간 전국 예상이동인원은 작년보다 10.1% 증가한 2천546만명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승용차로 고속도로 이용시 귀성길은 서울~대전 4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 귀경길은 대전~서울 4시간50분, 광주~서울 6시간50분으로 예상됐다.

교통수단으로 승용차(77.3%)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교과부 ‘인증제’ 도입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모든 초·중·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예방 인프라, 예방 활동, 지원 체계, 사안 처리 등으로, 학교별로 점수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성’의 등급이 매겨진다. /연합뉴스

무등산장 ~ 산수오거리

시내버스 1187-1번 증편

광주시는 무등산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무등산장(원효사)에서 산수오거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1187-1번을 1대 늘려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등산장에서 산수오거리까지 배차시간이 현재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시는 “무등산 옛길 복원사업으로 주말과 공휴일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어 시내버스를 증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양한 광고와 정보의 집합체. 상단에는 '남해안 건조주의보'와 '귀성길 혼잡'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에는 '2010년 2월 5일'을 표시한 달력 형식의 정보들이 보이며, 하단에는 '세계보청기'와 '세계스타·세기년창기'에 대한 광고가 눈에 띈다.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스타·세기년창기

이 광고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세계보청기'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세계스타·세기년창기'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하단에는 연락처와 웹사이트 정보가 제공된다.